

영애씨 드디어 결혼한다

시즌 16으로 돌아온 tvN '막돼먹은 영애씨' 내달 4일 첫 방영

김현숙 "10년째 ... 큰 변화 생겨 설레죠"

이규환·손수현 등 새 캐릭터 등장

영애 씨가 드디어 결혼한다. 다음 달 4일 첫 방송 하는 tvN 월화극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은 승준(이승준 분)과 전쟁 같은 결혼에 뛰어드는 '불혹' 영애 씨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2007년부터 10년간 이영애로 살아온 배우 김현숙(39)은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10년을 했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있기에 저 역시 여러 가지로 설렌다.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현숙은 또 "우리 드라마가 공감을 많이 얻었지만 시즌15에는 욕도 많이 먹었다"고 인정하며 "골수팬'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영애 씨는 그대로니 공감을 얻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영애보다 먼저 결혼해서 3살 된 아들들 둔 '워킹맘'으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며 "경험에 비추어 연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현숙은 10년간 같은 역할을 연기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적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다. 매너리즘에 빠질 요소들이 있었다"며 "그럴 때면 옛날 시즌을 다시 보면서 초심을 되찾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이름을 걸고 주도적으로 오래 드라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여성 선택이든 음과 양이 있다. 이미지 고착에 대한 고민은 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에서는 영애의 결혼과 임신뿐만 아니라 기존에 많은 공감을 얻은 직장 이야기도 이어진다. 3년 차가 된 '이영애 디자인' 대표로서의 영애가 집을 사무실로 단장하고 불황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진다. 김현숙과 이승준 외에 라미란, 정다해, 고세원 등이 지난 시즌에 이어 출연하며 이규환, 손수현 등이 새 얼굴로 등장한다. 이규환은 "승준 형 사촌 동생 역인데, 같은 이씨라 캐스팅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형진 PD는 오래 함께해온 배우 조덕제가 최근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의혹을 받은 건으로 이번 시즌에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정 PD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전에 배우들과 다 같이 논의해 이번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에서 영애(김현숙 분)와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승준 역의 배우 이승준(44)이 김현숙에게 큰 꽃다발을 건넸다.



배우 이승준(왼쪽)이 김현숙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영애씨, 고생했어요!" 이승준은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김현숙을 위한 깜짝 선물을 들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승준은 "저는 시즌12부터 함께했는데 워낙 팀 자체가 친밀하게 지내서 저한테도 처음부터 잘해주셨기에 녹아드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며 "이제는 저도 정말 10년 동안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애 씨는 여러 사람 만나 보고 제게 왔는데 전 아무도 못 만나 보고 처음부터 영애였고 앞으로도 영애뿐"이라며 "그래서 기분 좋다"고 웃었다. 12월 4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배우 이미지, 안타까운 고독사

오피스텔서 이웃 신고로 발견 '태조왕건'·'서울의 달' 등 다수 출연

배우 이미지(본명 김정미)(사진)가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홀로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졌고, 사망 2주 후야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8일 고인이 오피스텔에 돌아온 것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며 "25일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와 소방과 경찰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사망 사실을 확인,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노기 계통이 안 좋아 사망한 것으로 의사가 확인했다"며 "외인사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1979년 MBC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미지는 영화 '춘색호국'(1981), '팔다취권'(1981), '호걸총풍'(1987), '웅담부인'(1987), '홍두깨'(1990), '소녀경'(1992), '여자의 일생'(1993), '철가방 우수씨(씨)'(2012) 등에 출연했다. 또 '조선왕조 500년 뿌리깊은나무'(1983), '퇴역전선'(1987), '서울의 달'(1994), '파랑새는 있다'(1997),



'육남매'(1998), '태조 왕건'(2000~2002), '무인시대'(2003~2004), '기상 김만덕'(2010) 등 다수 드라마에 참여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9일(오전 7시 45분),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었다. /연합뉴스

"내용 어려운데 자꾸 끌려" OCN '블랙' 인기

시청률 상승세 ... 2회 연장도

OCN 주말극 '블랙'(사진)이 묘한 매력으로 조용히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내용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져 폭넓은 시청자층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독특한 내용과 구조에 매료된 시청스러운 시청자를 중심으로 단단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5%에서 출발해 4회에서 4.7%를 기록하며 상승세였던 시청률은 이후 미로 같은 이야기로 인해 꺾여 3%대에 머문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재방송을 포함한 각종 '다시 보기'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행거보는 시청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블랙'의 이야기는 어렵고 불편하다. 처음에는 '원조 꽃미남' 송승헌이 창조해내는 '병맛 코미디'로 대표되는 줄 알았는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미스터리 구조, 인간 세계와 저승사자 세계를 병렬 배치하는 판타지 구조 속에서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더구나 심히 불편하다. 처음에는 단순 살인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연쇄살인사건이 되고, 단순 정신병자의 범행인 줄 알았던 일이 거대한 음모로 밝혀지면서 드라마의 내용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이러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기' 덕에 2회가 연장돼 12월10일 18회를 막을 내린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 05 앙코르 MBC 스페셜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5 아침이 좋다 |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미당 |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
| 9 | 30 KBS 뉴스 |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0 VJ 특강대 (재) | 50 창사 56주년 특집 MBC와 좋은친구들 1부 |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
| 11 |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 (재) | 50 매드독 (재) | |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
| 12 |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 | 00 투깝스 (재)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지식총집 55 테마스페셜 |
| 1 |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팔도발상 스페셜 (재) | | 10 2017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스페셜 | 55 닥터 365 |
| 2 | 10 미래기획 2030 -이유있는 경교 학생제의 약속 |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 15 특선다큐 위대한 영화의 탄생기 | 00 뉴스브리핑 |
| 3 | 00 도전! K-스타트업 2017 |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 10 텔레몬스터 (재) 2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0 히어랜드 스페셜 | |
| 4 | 00 4시 뉴스집중 | | | 00 kbc보도특집다큐 일하고 싶은 직장 워라밸 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UHD 한식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절리고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애 웬수들 (재) |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 30 2TV 생생정보 |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총집 |
| 7 | 00 KBS 뉴스 7 35 평창 패럴림픽 G-100 특집 불꽃처럼 뜨겁게 | 50 내 남자의 비밀 (재) |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
| 8 | 25 미워도 사랑해 |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로봇이 아니라 미러보이 50 전지적 참견 시점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40 슬로우 피시, 말린 생선의 비밀 | | | |
| 10 | 35 UHD 한식 40 KBS 뉴스라인 | 00 매드독 | | 00 이판사판 |
| 11 | 00 문화의 향기 | 10 김성민의 영수증 | 10 라디오스타 1~2부 |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
| 12 |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50 인간극장 스페셜 | 20 세상의 모든 다큐 | 45 창사 56주년 특집 MBC와 좋은친구들 1부 스페셜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 |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재) |
|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 인도네시아 물소) |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오리비결 (등갈비 김치찌개와 사래기밥) |
| 06:00 한국기행(재)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 06:20 세계테마기행(재) | 12:00 EBS 정오 뉴스 |
|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 07:30 똑딱맨 | 12:40 지식채널 e |
| 07:45 뽀롱뽀롱 뽀로로 | 12:45 EBS초대석(재) |
|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 13:40 미래강연 Q (탈무드와 허브루타) |
|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 08:45 한글이 야호2 | 15:00 마사와 곰 |
| 09:00 레이디버그 |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
| 09:30 플랑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11월 29일(음 10월 12일 庚申) |
|----------------|---|---|
| 子 | 48년생 펼쳐지는 동세가 그다지 아름답다고만은 볼 수 없으니 일찌감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세이다. 72년생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84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로다. 행운의 숫자 : 30, 29 | 42년생 장고 끝에 내린 결판이라면 실행해도 된다. 54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8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90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30 |
| 丑 | 49년생 이무기에는 기초가 될 만한 정성이 너무나 부족하므로 공을 들여야 한다. 61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73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85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73, 19 | 43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5년생 들어오는 것에 신경 써라. 67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미분책은 두 번 일 하게 한다. 91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진행 방향을 설정하자. 행운의 숫자 : 13, 59 |
| 寅 | 50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이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62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꺾어서 아니 되겠다. 74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86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서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2 | 44년생 내버려 두면 큰 일 나겠으니 조치하여야 한다. 56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8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80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42, 40 |
| 卯 | 51년생 자신의 뜻이 옳고, 추진한다면 성사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63년생 길사가 다가서고 있다. 75년생 조금씩 하지 않는다면 길운을 맞으리라. 87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3, 97 | 45년생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57년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다가 잡히리라. 69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민첩하라. 81년생 쉽게 드러나 있는 모순이 보이니 속히 개선함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55, 46 |
| 辰 | 52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용해야 하는 단계로다. 64년생 가까이에서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는 법이다. 76년생 활성화된 형태의 이면에는 약제의 불씨가 움틀 수도 있다. 88년생 주권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2, 70 | 46년생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으니 몸을 낮추고 파악에 주력하라. 58년생 번거롭더라도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70년생 힘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82년생 보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9, 21 |
| 巳 | 53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제가 못되므로 모든 것을 차치하고 속히 서둘러라. 65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울 것 이다. 77년생 복 속에 화의 근원이 숨어 있다. 89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7, 83 | 47년생 누구든지 회자정리하는 법이니 헤어짐을 슬피하지 말고 현재에 있어 미련 없이 임함은 옳다. 59년생 따스한 날이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71년생 확실히 알게 되리라. 83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남비다. 행운의 숫자 : 35, 62 |